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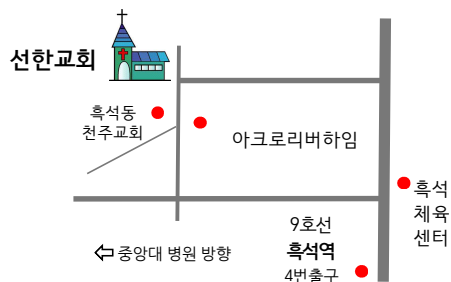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1부 주일 오전	9:30	오전 11: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2부 주일 오전	11:00	오전 11:00	요 셉 회 오후 2:00
3부(청년) 오후	1:00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오전 10:00	루 디 아 회 오후 1:00
주일 오후	3:30	오전 1:00	마 리 아 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오전 2:00	드 보 라 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오전 2:00	에 스 더 회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셀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 임 목 사 임 춘 배	
		국 내 선교사	오 인 숙, 한 배 선
		교육목사 정 용 준	협 력 교 회
		전임전도사 윤 영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협력전도사 오 호 남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주안에교회 (이정필 목사)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해외협력선교사	
		김만조, 이금춘, 조나단	
장 로		관 리 장 로	
		손 석 규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너희는 강하게 하라 (대하 15:7)
Be strong and do not give up

실 천 사 항 믿음의 선포 제자의 삶 선교사의 삶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 13:16)



추 수 감사절

축 제에게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인도: 임춘배 목사

1, 2부

찬양과경배	인도자
기도	조계승 장로
간증	최윤정 집사
찬양	(1부) 429장 (2부) 드림성가대
특송	이하은 성가사
영상	감사의 언어
성경봉독	히브리서 13장 15~16절
설교	최고의 감사 제사를 드리자 (임춘배 목사)
헌금	헌금송 : 김은희 권사
환영및광고	인도자
파송의노래	하나님의 부르심
축도	임춘배 목사
성도의교제	다 함께

주일오후

사회: 최영석 집사

찬양	성가대
기도	김현석 집사
성가대합창	찬송가 29장 (통일찬송가 29장)
말씀	시편 150편 1~2절
설교	아름다운 드림성가대 (유신웅 장로)
광고및축도	임춘배 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인도자 : 정용준 목사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삶 (요한복음 1장 9~12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안내**
 -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 2) 오늘 점심 봉사는 루디아회입니다.
 - 3)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4) 주차 안내: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주차권은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추수감사절헌신예배**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최고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가대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 강사: 유신웅 장로
- 노방전도**

11월 노방전도는 각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추후 공지 예정.
- 성탄준비위원회**

26일(주일) 오후 예배 후 교회 전체 성탄 데코레이션 진행.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 바랍니다.
* 문의: 전희영 집사
- 성탄절칸타타**

성탄절 칸타타에 함께 하실 성도님을 모집합니다.
* 연습 시간: 11월 26일(주일)부터 매 주일 오후 예배 후 한 시간
* 칸타타 발표일: 12월 17일 오후예배 * 문의: 김현석 집사
- 특별위원회명단**

특별위원회 명단(인사위원회, 예결산위원회)을 발표합니다.
- 교통안내**

다음 주일(26일)에 중앙대 논술 시험이 있으므로 교통 혼잡이 예상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임목사동정**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다녀옵니다.
- 결혼식**

심인섭 집사님의 장녀 재희 양이 결혼을 합니다.
* 일시: 11월 25일(토) 오전 11시
* 장소: 더 마레보 15층 Atelier, M (수원시 영통구 031-202-3773)
- 떡과일제공**

담임목사님 가정 / 박희태 장로님 김명옥 권사님 가정에서 떡, 과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도록.

가정예배 편견의 색안경을 벗고	
찬양	‘내 너를 위하여’ 311장 (통 185)
본문	고린도전서 4장 3~5절
말씀	어느 날 나귀가 등에 짐을 잔뜩 싣고 길을 걷다가 그만 연못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귀는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연못가에 있던 개구리가 소리를 쳤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연못에 좀 빠졌다고 뭘 그리 엄살이나. 나는 너보다 몇십 배나 몸집이 작지만, 연못에서 헤엄치고 논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개구리가 바로 우리 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다른 언행을 하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롬 14:10)
말씀	오늘 본문에서 세 종류의 판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 사람에게서 받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매우 작은 일입니다. 신경 쓸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런 일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소신이 없고 좇대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내가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 양심의 판단입니다. 물론 첫 번째 판단보다는 솔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심의 판단도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양심의 판단을 고집하다 보면 독선적이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셋째 주님의 판단입니다. 모든 일 앞에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내 처지가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님의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약 2:1)고 했습니다. 주께서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요 7:24)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십니다.(롬 2:11, 골 3:25)
말씀	생각이 다른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내게 다가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만나보고, 한번 말해보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성급한 일입니다.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판단하기보다는 이해의 마음을 가질 때 감춘 것이 드러나고 마음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편견의 색안경을 벗고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만나기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	
제 목	최고의 감사 제사를 드리자 (히 13:15~16)
서 론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론	1.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1)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15절). (2) 온 마음과 가장 큰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가 최고의 감사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가 최고의 감사이다. (4) 하나님은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제사’를 기뻐하신다(16절).
	2. 교훈 (1) 나는 누구에게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2) 하나님께 온 마음과 가장 큰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는가? (3) 조건부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인가? (4)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이웃과 나누고 있는가?
결 론	최고의 감사를 드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조계승 장로	박영근 장로
2부 예배 헌금	심인섭 집사	방성자 집사
오후 예배 기도	김현석 집사	이소영 집사
주 방 봉 사	루디아회	청년/청소년부

매일 Q.T.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지혜로운 판단	날짜 : 11월 20일 월요일
찬양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본문	잠언 20:1~14		
말씀요약	포도주와 독주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왕을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며,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영광이 됩니다. 눈과 귀를 지으신 하나님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를 미워하십니다. 가을에 밭을 갈지 않는 게으른 자나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빈궁하게 됩니다.		
목상질문 1	정확한 판단과 결정 20:1~7 포도주와 독주에 빠지는 자마다 지혜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1절)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위해 내가 멀리할 것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왕과 하나님의 심판 20:8~14 하나님은 한결같지 않은 추와 되를 어떻게 보시나요?(10절) 작은 이익에 눈멀어 부정직함을 선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한절묵상	잠언 20장 11절 행동은 인격을 보여 주는 거울입니다. 성숙한 인격은 성숙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성도에게는 가장 귀하고 고상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은 믿음이 되고, 믿음은 성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지식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하며 언행이 어른스러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 갈 때 건강한 인격과 거룩한 행실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제게 남아 있는 무절제한 습관과 어리석은 다툼을 그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로 선택하고 결단하게 하소서. 제 삶의 구석구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작은 죄와도 치열하게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개인 성경 공부 “경건한 삶을 사는 지혜”	
찬양과 기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새 540)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1900년경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 소속 앨버트 윈ship(Albert E. Winship)은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Jukes-Edwards: a Study in Education and Heredity)를 통해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삶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신앙인의 표본으로 프린스턴 대학교 설립자이자 신실한 청교도인 조너선 에드워즈의 후손을 조사하고, 비신앙인의 표본으로 동시대 뉴욕에서 술집을 운영해 큰 부자가 된 맥스 주크의 후손을 조사했다. 불신자인 주크는 불신자와 결혼해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았고, 그의 자녀들은 부부 갈등과 가정폭력에 방치된 채 성장했다. 그의 자손 1,026명을 연구한 결과 300명은 일찍 죽고, 100여 명은 한 번 이상 교도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정신병자와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 65명, 정부 보조 극빈자가 286명이었다. 윈ship은 연구 결과를 정리하며 맥스 주크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만큼 범죄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 조너선 에드워즈는 기독교인과 결혼해 청교도의 신앙을 따라 살았으며, 가정예배를 통해 자녀들을 신앙으로 경건하게 양육했다. 그의 자손 729명을 연구한 결과 300여 명의 복음 전도자가 나왔고, 선교사와 목사 116명, 교수 65명, 대학장 13명, 작가 60여 명, 국회의원 3명, 그리고 부통령 1명이 나왔다. 이는 경건한 신앙생활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경건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 준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나의 가정과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일은 무엇인가요?
말씀 나누기	잠언 20:1~14
목상포인트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 매사에 성실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툼을 멀리하고, 절제와 의로운 행실이 몸에 밴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특히 음주 문화에 대해 단호히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게으름과 나태함을 선택하면, 종국에는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정직과 성실, 경건과 거룩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것입니다.
관찰과 목상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절제하지 못하도록 유혹해 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1절)
적용하기	술은 경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음주 문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기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서 매 순간 경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써 믿음을 고백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선한 눈과 정결한 마음에 좋은 보상이 따릅니다	날짜 : 11월 24일 금요일
찬양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본문	잠언 22:1~16		
말씀요약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은금보다 은총을 택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습니다.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아이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것입니다.		
목상질문 1	부자와 가난한 자의 하나님 22:1~9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2절)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시선 중에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가까이할 자와 멀리할 자 22:10~16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고 입에 덕이 있을 때 받는 복은 무엇인가요?(11절) 입에 덕이 있는 삶이 되도록 나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한절목상	잠언 22장 6절 히브리어로 율법은 ‘토라’이고, 부모는 ‘호라’입니다. ‘호라’(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자녀에게 ‘토라’(율법)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토라를 배워야 할 이유를 가르치기보다, 토라를 가까이 하는 부모의 삶으로 토라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과 세상의 정보를 우선시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필요한 삶의 원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내 길’을 가지만, 말씀을 배우고 가까이하면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은금보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자랑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빈궁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지나치지 않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 인생의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매일 Q.T.		백발에 이르기까지 나의 걸음을 정하시는 하나님	날짜 : 11월 21일 화요일
찬양	찬송가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		
본문	잠언 20:15~30		
말씀요약	지혜로운 입술은 금과 진주보다 귀합니다.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젊은이의 영광은 그 힘에 있고, 노인의 아름다움은 백발에 있습니다.		
목상질문 1	지혜로운 입술과 지혜로운 판단 20:15~23 원수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나요?(22절) 내가 직접 처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맡길 대상은 누구인가요?		
목상질문 2	모든 것을 보시고 길을 정하시는 분 20:24~30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속을 어떻게 살피시나요?(27절) 내면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참모습은 어떠할까요?		
한절목상	잠언 20장 15절 세상에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다. 사람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수록 그것에 빠져듭니다. 금과 진주로 자신을 뽐내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품위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입술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성도의 삶을 빛나게 합니다. 금세 사라질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얻는 성도는 복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말로만 고백하는 사랑이 아니라 섬김을 동반한 행함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거룩한 입술을 갖게 하소서. 제 인생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소서.		

매일 Q.T.		선과 악을 살펴보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날짜 : 11월 22일 수요일
찬양	찬송가 465장 주 믿는 나 남 위해		
본문	잠언 21:1~14		
말씀요약	사람의 행위가 정직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사람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제사보다 기뻐하십니다. 악인이 행통한 것은 다지며, 의로우신 이가 그를 환난에 던지십니다. 부지런하면 풍부해지나 조급하면 궁핍해집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사람은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묵상질문 1	능하신 하나님의 손 21:1~8 최고 권력자인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서 움직이나요?(1절) 나를 사랑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담대히 할 일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다툼과 고통을 보시는 의로우신 분 21:9~14 가난한 자가 호소할 때 외면하는 사람은 어떤 대접을 받게 되나요?(13절) 내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화평을 추구하면서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잠언 21장 3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자의 바른 삶을 전제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삼하 8:15). 하나님은 그분 백성에게 많은 제사보다 정의와 공의 행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예배 의식에 참석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며 불의한 삶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죄로 무너진 삶을 고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사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정직하고 의로운 삶으로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거만하고 교만한 제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줄 알고 넉넉한 섬김과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매일 Q.T.		승리의 주권자 앞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성도	날짜 : 11월 23일 목요일
찬양	찬송가 450장 내 평생소원 이것뿐		
본문	잠언 21:15~31		
말씀요약	연락을 좋아하면 가난하게 되고 공의와 인자를 구하면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 방벽을 헐고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구합니다. 어떤 자는 종일 탐하지만 의인은 아낌없이 베풀며 자기 행위를 삼갑니다. 지혜나 명철, 모략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묵상질문 1	정의와 절제를 추구함 21:15~24 지혜로운 자의 집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20절) 소중한 삶을 지키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 내가 절제할 일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21:25~31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30절) 최선을 다했으나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일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한절묵상	잠언 21장 30~31절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약 1:5). 그러나 하나님을 잊은 사람은 자신의 지혜, 명철, 모략 등을 앞세워 스스로 잘 준비해서 승리를 얻고자 합니다. 수많은 지혜 자가 머리를 맞대도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를 넘어서 수 없습니다. 가정, 교회, 일터 등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은 모두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승리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세상이 주는 기쁨에 젖어 주님과 멀어지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소서. 모든 상황에서 절제하는 경건의 능력과, 입술을 다스리는 성숙한 신앙을 갖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 한 분의 지혜가 큼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